

교육부 검정

2019. 8. 6.



중학교 국어 3-1



이삼형 | 김창원 | 정재찬 | 최홍원 | 김근수 | 김서경 | 오리사 | 오요한



» 표지 이야기

우리들이 성장하고
꿈을 새기는 과정을
새싹이 싹을 틔우는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 교과서 물려주기 기록표

연도	교과서 사용자				상태
	학년	반	번호	이름	

> 상태 표기 예시: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중학교

국어 3-1



이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드디어, 중학교의 마지막 학년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은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시간이자, 나와 세상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나이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이기도 하지요. 이런 시기에 우리는 『국어』를 배웁니다.

9년째 『국어』를 배우고 있으니 국어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는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내용을 다시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올해는 중학교 3학년에 걸맞게 작년보다 더 길고, 더 복잡하고, 더 깊이 있는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활동들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며 다가올 미래에 관해 이모저모로 고민하는 데 바탕이 됩니다. 나아가, 수준 높은 국어 사용자가 되기 위해 언어와 한국어에 관한 지식을 쌓는 일도, 감성이 있는 교양인이 되기 위해 풍부한 문학 경험을 쌓는 일도 국어 시간에 할 일입니다.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국어』의 연장선상에 중학교 『국어』가 있듯이, 이 다음에는 고등학교 『국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후엔 화법과 작문·독서·언어와 매체·문학 등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는데, 중학교 3학년 『국어』를 충분히 공부하면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일종의 종합판 중학 국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제시된 글을 읽고 학습 활동을 하다 보면 저절로 국어를 잘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언어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언어는 물이나 공기와 같아서, 우리는 그것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처럼 바르고 잘 통하며 아름다운 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그럼 함께 시작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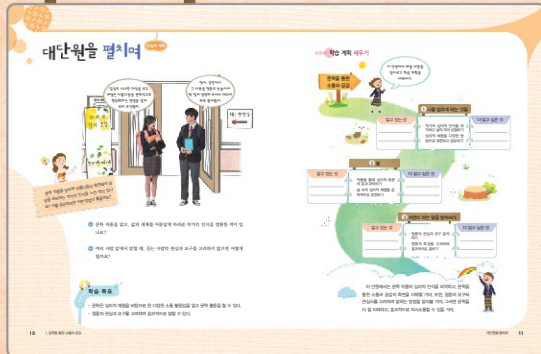
저자들이 학생들을 응원하며



구성과 활용



대단원을 펼치며



도입과 계획

- 생활 속의 언어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질문을 통해 대단원 학습 목표를 이해해 보자.
- 대단원의 흐름을 살펴보고, 사전 점검을 통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 보자.

생각 열기



소단원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간단한 준비 활동을 하고, 소단원의 학습 목표와 내용을 확인해 보자.



제재 중심 단원



소단원의 학습 목표를 이해하기에 적합한 다양한 읽기 제재와 문학 작품을 제시하였다.



단원의 내용을 이해하고, 목표에 도달하고, 이를 우리의 실생활이나 다른 교과에 적용해 보도록 구성하였다. 스스로 또는 친구들과 협력하여 활동을 해 나가면서 자기 주도 학습을 완성해 보자.



활동 중심 단위

1.1 주제 학습 목적, 계획을 고려한 쓰기

단원 학습 목적을 소개하기 위해 단원이 끝나기 몇 주 전부터, 다양한 활동 중심 쓰기 활동을 해 보자.

1. 단원이 끝날 때가 되면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써 보자.

단원 학습 목적을 소개하기 위해 단원이 끝나기 몇 주 전부터, 다양한 활동 중심 쓰기 활동을 해 보자.

1.2 서한으로 문학적 표현

단원 학습 목적을 소개하기 위해 단원이 끝나기 몇 주 전부터, 다양한 활동 중심 쓰기 활동을 해 보자.

단원 학습 목적을 소개하기 위해 단원이 끝나기 몇 주 전부터, 다양한 활동 중심 쓰기 활동을 해 보자.

소단원의 학습 목표를 단계별 활동을 하며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국어』 과목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의 학습, 나아가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될 다양한 활동을 해 보자.

창의·융합 활동

활동의 내용을 다른 영역이나 교과와 융합하는 창의·융합 활동을 통해 사고력을 키워 보자.



한 학기 한 권 읽기

1.1 한 학기 동안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 읽기 활동을 네 단계로 구성하였다.

독서 활동을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느껴 보자.

1.2 독서 활동을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느껴 보자.

독서 활동을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느껴 보자.

한 학기 동안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 읽기 활동을 네 단계로 구성하였다. 독서 활동을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느껴 보자.



단원+단원

단원+단원

단원 학습 목적을 소개하기 위해 단원이 끝나기 몇 주 전부터, 다양한 활동 중심 쓰기 활동을 해 보자.

단원+단원

단원 학습 목적을 소개하기 위해 단원이 끝나기 몇 주 전부터, 다양한 활동 중심 쓰기 활동을 해 보자.

통합과 적용

각 소단원의 내용을 통합하여 적용함으로써 대단원의 목표를 달성해 보자.

대단원을 닫으며

대단원을 닫으며

대단원 학습 목적을 소개하기 위해 단원이 끝나기 몇 주 전부터, 다양한 활동 중심 쓰기 활동을 해 보자.

대단원을 닫으며

대단원 학습 목적을 소개하기 위해 단원이 끝나기 몇 주 전부터, 다양한 활동 중심 쓰기 활동을 해 보자.

정리와 점검

대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스스로 점검해 보자.

더 나아가기

궁금한 내용, 더 알고 싶은 것을 생각하도록 하였다. 스스로 질문을 하며 대단원의 목표를 내면화해 보자.

이 책의 차례



문학 듣기·말하기

1

문학을 통한 소통과 공감

학습 요소

- 심미적 체험으로서의 문학의 특성을 알고 문학 활동하기
- 청중의 요구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말하기

- | | |
|----------------------------|----|
| (1)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_ 반칠환 | 12 |
| (2) 별 _ 알폰스 도데 지음 / 임희근 옮김 | 19 |
| (3) 자연이 하는 말을 받아쓰다 _ 김용택 | 36 |

쓰기 문법

2

좋은 글, 바른 문장

학습 요소

-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의 특성을 알고 글을 쓰기
-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이해하고 문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 | | |
|---------------------|----|
| (1)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 | 56 |
| (2) 문장의 짜임과 양상 | 70 |

읽기 쓰기

3

전략적으로 읽고 논리적으로 쓰기

학습 요소

-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글을 읽기
- 한 학기 한 권 읽기
-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쓰기

- | | |
|---------------------|-----|
| (1) 모두를 위한 디자인 _ 김신 | 90 |
| • 한 학기 한 권 읽기 | 98 |
| (2) 주장하는 글 쓰기 | 109 |



4

문학 속의 세상

- | | |
|----------------------|-----|
| (1) 천만리 머나먼 길에 _ 왕방연 | 128 |
| (2) 수난이대 _ 하근찬 | 134 |
| (3) 성북동 비둘기 _ 김광섭 | 157 |

학습 요소

- 작품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배경 파악하기
-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기

5

비판적인 읽기와 듣기

- | | |
|-----------------------------|-----|
| (1) 디지털 치매, 걱정할 일 아니다 _ 이준기 | 172 |
| (2)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듣기 | 183 |

학습 요소

-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기
- 설득 전략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듣기

자료 출처

198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의사소통 역량





문학

듣기 말하기

1

문학을 통한 소통과 공감

(1)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_ 반철환

(2) 별 _ 알폰스 도데 지음 / 임희근 옮김

(3) 자연이 하는 말을 받아쓰다 _ 김용택

문화 향유 역량



대단원을 펼치며

도입과 계획



- ◆ 문학 작품을 읽고, 삶과 세계를 아름답게 바라본 작가의 인식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 ◆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듣는 사람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학습 목표

-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다.
-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다.

●● 학습 계획 세우기

문학을 통한 소통과 공감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알아보고 학습 계획을 세워야지.

1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알고 있는 것		더 알고 싶은 것
	• 작가의 심미적 인식을 파악하고 삶의 의미 성찰하기 • 심미적 체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공유하기	

2 별

알고 있는 것		더 알고 싶은 것
	• 작품을 통해 심미적 표현의 효과 파악하기 • 삶 속의 심미적 체험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기	

3 자연이 하는 말을 받아쓰다

알고 있는 것		더 알고 싶은 것
	• 청중의 관심과 요구 분석하기 • 청중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말하기	

이 단원에서는 문학 작품의 심미적 인식을 파악하고, 문학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측면을 이해할 거야. 또한, 청중의 요구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말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야. 그러면 문학을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 거야.

(1)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생각 열기

다음 그림을 살펴보고, 그림에 담긴 작가의 생각을 짐작해 봅시다.



그림 속 아이의 표정이 다른 사람들의 표정과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주변의 사소한 대상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낀 경험을 말해 봅시다.

“그림 속 아이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소하지만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 이처럼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도 작품에 담긴 삶에 관한 인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경험들을 돌아본다면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지?”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 속도에 대한 명상 13

반칠환

보도블록 틈에 핀 씀바귀꽃 한 포기가 나를 멈추게 한다

어쩌다 서울 하늘을 선회하는 제비 한두 마리가 나를 멈추게 한다

육교 아래 봄별에 탄 까만 얼굴로 도라지를 다듬는 할머니의 옆모습이 나를 멈추게 한다

굽은 허리로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다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나를 멈추게 한다

나는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한 힘으로 다시 걷는다

- 반칠환, 『뜰채로 죽은 별을 건지는 사랑』

• 선회하다(旋回 --) 돌레를 빙글빙글 돌다.

반칠환(1964~)

시인. 시집으로 『뜰채로 죽은 별을 건지는 사랑』, 『누나야』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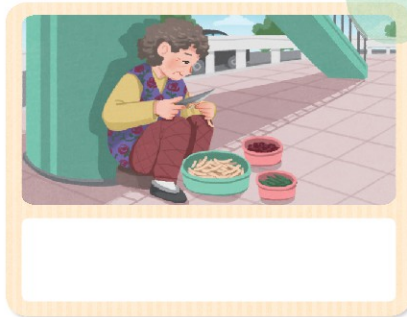


이해 활동

1. 이 시의 화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이 시에서 화자를 멈추게 한 것들을 정리해 보고, 그 공통점을 파악해 봅시다.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목표 활동

1. 이 시의 화자가 체험한 심미적 인식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 1 화자가 걸음을 멈춘 까닭을 생각해 보고, 이 시의 마지막 연이 뜻하는 바를 이야기해 봅시다.



화자가 대상의 가치를 아름다움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얻은 깨달음을 중심으로 보면, 화자가 체험한 심미적 인식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한 힘으로 다시 걷는다



- 2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작가가 전하고자 한 심미적 인식은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작가는

을/를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 3 이 시를 감상한 후, 우리가 사는 세계와 삶의 의미에 관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지 말해 봅시다.



세계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심미적 인식**

심미적 인식이란 대상의 가치를 아름다움의 측면에서 깨닫는 행위, 또는 그러한 깨달음의 결과를 말합니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작가의 심미적 인식을 공유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며, 삶의 의미를 성찰하게 됩니다.

2. 이 시는 주로 시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심미적 체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활동을 바탕으로 이러한 표현의 효과를 생각해 봅시다.

1 나를 멈추게 한 일상 속의 경험을 생각해 보고, 다음 중 한 가지 심상을 골라 그 심상을 중심으로 표현해 봅시다.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예 (촉각) 아침 등굣길, 얼굴에 비친 따스한 햇살이 나를 멈추게 한다.

2 동일한 심상을 선택한 친구들끼리 모둠을 이뤄 서로의 경험을 나누어 보고, 그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모둠의 심상:

이름	걸음을 멈추게 한 경험

3 이와 같이 심상을 통해 심미적 인식을 표현한 효과를 말해 봅시다.



배움의 깊이를 더하는

창의 · 융합 활동

함께하기



|| 다음 시를 감상한 후, 이어지는 활동을 해 봅시다.

딸을 위한 시

마중하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 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 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라고.’

— 마중하, 『활주로가 있는 밤』



1. 이 시를 감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둠별로 모방 시를 만들어 봅시다.

- 1 이 시의 주제를 파악해 보고, 이 시를 감상한 후의 느낀 점에 관해 모둠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2 일상 속 주변의 모습이나 대상을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모둠원들과 함께 이 시의 ‘시인의 말’을 새롭게 만들어 봅시다.

한 시인이 어린 자녀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 하는 사람이 되라고.

2. 1에서 창작한 모방 시를 영상으로 표현하여 친구들과 함께 감상해 봅시다.

1 모둠별로 영상 시를 제작하기 위한 이야기판을 만들어 봅시다.

순서	장면 그림	장면 내용	
1		화면	
		소리	
		자막	
2		화면	
		소리	
		자막	

2 이야기판을 활용하여 영상 시를 완성한 후, 반 친구들과 함께 감상해 봅시다.

활동을 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평가 기준

- 시에 담긴 심미적 인식을 잘 파악하여 모방 시로 표현하였는가?
- 모둠별로 제작한 영상 시가 다른 이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시의 주제를 잘 파악하여 영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였어.

일상 속의 심미적 인식을 친구들과 공유함으로써 삶을 돌아볼 수 있었구나.